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30장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산상설교』 상권 제30장, 인쇄 394~407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43~48 (특히 5:47)

> ❓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교회 밖에도 많은데, 그리스도인이라서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게 정말 있을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원수 사랑 단락 가운데 47절의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 대목 전체의 열쇠로 삼는다. 그는 먼저 산상설교가 사람을 낙심시키는 동시에 격려한다는 복음의 역설을 짚는다. 이어 산상설교를 '할 수 있는 윤리 강령'으로 읽는 관점은 그 두 면을 다 놓쳤다고 비판한다. 그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데 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본질적으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원칙을 세운다. 그다음 그 특별함이 죄·이웃·하나님·선행·고난·원수·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이고, 그 특별함의 뿌리를 용서받음·새로운 인생관·하나님의 자녀 됨·성령의 내주에서 찾는다. 설교는 “당신에게 하늘 아버지를 닮은 데가 있는가”라는 시금석 질문으로 끝난다.

📜 절별 정리

📜 1. 클라이맥스인 47~48절과 복음의 역설

로이드 존스는 47절이 원수에 대한 가르침을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클라이맥스”로 이끈다고 본다. 주님은 제자들의 세부 행동 목록보다 그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48절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진리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표적이라고 한 말이 그 역설의 시작이다. 산상설교도 같다. 정욕의 눈길까지 문제 삼고 십 리를 가라는 요구는 십계명조차 버거운 우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쓰러뜨린다. 그러나 이런 명령을 주신다는 사실 자체가 '할 수 있다'는 뜻을 품고 있으므로, 산상설교는 동시에 가장 큰 격려가 된다.

1. 47절이 원수 사랑 단락의 열쇠다
2. 48절은 5:17~48 전체의 요약이다
3. 복음은 넘어뜨리고 일으키는 역설이다
4. 산상설교는 낙심과 격려를 함께 준다
5. 명령 자체가 가능성을 함축한다

> **마태복음 5:47**
> 설교의 중심 물음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
>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 **마태복음 5:48**
> 이 대목 전체를 요약하는 최고 기준
>
>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 **누가복음 2:34**
> 복음의 역설이 처음 드러나는 시므온의 예언
>
>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 **마태복음 5:28**
> 마음의 정욕까지 다루는, 낙심하게 하는 요구의 예

마태복음 5:41

십 리를 가라는, 자연인을 넘어서는 요구의 예

>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 2. '실천 가능한 윤리 강령'으로 읽는 잘못

로이드 존스는 산상설교를 윤리 강령이나 사회 개혁 계획안으로 보는 태도를 “우스꽝스럽다”고 하며 다시 경계한다. 번역서는 이를 '물질적 산상설교관'이라 부른다.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산상설교는 실제적이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들에게 48절을 들이댄다.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요구 앞에서면 자연인에게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같은 구절을 따로 떼어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어떤 싸움도 거부하는 수동적 저항자가 된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럽고 특이한 위치는 보지 못한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남보다 윤리적 노력을 조금 더 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는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데 있다고 진단한다.

1. 윤리 강령 관점은 역설의 두 면을 다 약화한다
2. 48절 앞에서는 '할 수 있다'가 무너진다
3. 구절을 떼어내 전부로 삼는 것이 문제다
4. 그리스도인을 노력하는 도덕가로만 본다
5.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모르는 것

마태복음 5:48

자연인이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기준

>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44

따로 떼어 평화주의 강령으로 쓰이는 구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20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특별한' 의를 요구하는 같은 사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3. 첫째 원칙: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특별한 사람이다

로이드 존스는 모펫(Moffatt) 역의 “그것의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를 열쇠로 삼는다. 이것은 5:20에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를 요구하신 것과 같은 사상이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은 두 겹이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남과 다르다.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한다. 오 리는 누구나 가지만 십 리를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최악의 사람뿐 아니라 최고 수준의 자연인도 넘어선다고 말한다.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은 본래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이슬람교도나 간디와 그 추종자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예는 도덕성과 유신론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 점검 질문은 “내 삶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로만 설명되는 무언가가 있는가?”가 된다.

1. 특별함은 '남과 다름'과 '하나님 닮음' 두 겹이다
2. 세리·이방인도 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3. 최선의 자연인도 넘어서는 사람이다
4. 도덕성과 신앙심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5. 그리스도와의 관계로만 설명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5: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47

이방인도 하는 인사를 넘어서는 '더함'의 요구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20

높은 표준의 바리새인도 넘어서야 함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45

원수 사랑으로 아버지의 아들임이 드러남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48

하나님을 닮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독교인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하는 사람입니다.”

📜 4. 둘째 원칙(1): 새 피조물은 법의 정신과 마음을 본다

머물려 할 뿐, 법이 가리키는 정신은 생각하지 않는다. 자연인은 억지로 순종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자연인의 도덕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따지는 소극적 태도인 반면,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적극적이다. 죄를 보는 눈도 다르다. 주님이 간음에서 마음과 생각을 물으셨듯, 그리스도인은 행동을 넘어 마음까지 본다. 자연인도 “나도 결점은 있다”고 인정하기는 한다. 그러나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지거나 애통하지는 않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임을 보지 못한다. 찰스 웨슬리의 찬송처럼 “죄와 악함이 가득하다”는 고백을 그는 오히려 모욕으로 여긴다. 이웃을 보는 눈도 다르다. 자연인은 너그러움에 그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이 세상 신'에게 사로잡힌 죄의 희생물로 본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자연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율법 수여자로 보지만, 그리스도인은 거룩하면서도 다정한 아버지로 알고 사랑한다.

1. 새 피조물이라 모든 영역에서 다르다
2. 조문보다 법의 정신을 즐거워한다
3. 행동을 넘어 마음의 죄를 본다
4. 자신을 정죄받을 죄인으로 안다
5. 이웃은 사탄의 포로, 하나님은 아버지로 본다

> **고린도후서 5:17**
> 그리스도인이 새 피조물이라는 다름의 근거
>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로마서 7:22**
> 억지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
>
>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 **마태복음 5:28**
> 행동을 넘어 마음을 묻는 주님의 관점
>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마태복음 5:3~4

자연인에게 없는 심령의 가난과 애통

[3]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고린도후서 4:4

이웃을 '이 세상 신'의 지배 아래 있는 자로 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누가복음 10:27

하나님과 이웃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려는 새 관계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 5. 둘째 원칙(2): 선행·고난·원수·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다름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로이드 존스는 자연인이 기계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요소를 지닌 예술가와 같다고 말한다. 자연인도 선행을 많이 하지만 그 기록을 늘 의식한다. 은근히 자기 선행을 언급하는 데 능하고, 그 선행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손실을 따지지 않고 희생적으로, 왼손이 모르게 준다. 질병이나 전쟁 같은 시련 앞에서 자연인도 위엄 있게 견딜 수는 있다. 그러나 환난 중에 기뻐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시련으로 자기를 다듬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기뻐한다. 해를 당할 때 자연인은 무쇠 같은 의지로 참거나 냉소로 무시한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진다. 원수 사랑은 단지 싸우지 않거나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원수의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없었다. 죽음 앞에서도 자연인은 극기적 체념으로 죽지만,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며 기대 속에 죽는다.

1. 동기가 사랑이라 예술가처럼 행한다
2. 선행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희생적으로 준다
3. 환난 중에도 뜻을 알기에 기뻐한다
4. 원수 사랑은 수동성이 아니라 적극적 기도다
5. 죽음을 체념이 아닌 기대로 맞는다

로마서 13:10

사랑이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인의 동기

>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마태복음 6:3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선행의 근거

>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로마서 8:28

시련 속에 숨은 하나님의 선한 뜻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태복음 16:24

해를 당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

>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5:39~42

뺨·겉옷·십 리·꾸어 줌, 기꺼이 행하는 삶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빌립보서 1:21, 23

죽음을 유익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임종관

빌립보서 1: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3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 6.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로이드 존스는 이 특별함의 뿌리를 묻는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소망 없이 정죄받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사랑을 깨달았다. 자격 없이 용서받은 사람에게 원수를 용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또 그는 이 세상을 나그네 길로 보고 터가 있는 성을 찾는다. 이 인생관이 모든 것을 바꾼다. 그는 영광의 소망도 품고 있다. 그 아침에 자기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의 눈을 볼 때, 누군가를 미워했던 기억이 떠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산상설교를 읽고 “내 의지력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을 주신 분일 뿐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버지다. 신의 성품이 성령으로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특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포도나무의 가지이므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1. 자격 없이 용서받았기에 원수를 용서한다
2. 나그네 인생관이 모든 것을 바꾼다
3. 의지력의 결심이 아니라 거듭남이 출발이다

5. 성령과 부어진 사랑이 특별함의 원천이다

히브리서 11:10

터가 있는 성을 찾는 나그네의 인생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히브리서 13:14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고백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마태복음 5:45

원수 사랑으로 '아버지의 아들'임이 드러남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베드로후서 1:4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신의 성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13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로마서 5:5

성령으로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5

가지로서 반드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기독교인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 7. 마지막 시금석: 아버지를 닮은 데가 있는가

로이드 존스는 이 질문을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질문이라고 부르며 설교를 맺는다. 그는 선하고 바르게 사는지, 기도하는지, 교회에 꾸준히 나오는지를 묻지 않는다. 그런 것을 잘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묻는 것은 "당신에게 특별한 점이 있는가"이다. 그는 가족 닮음을 예로 든다. 부모를 많이 닮지 않은 아이도 어딘가 닮은 데가 있어 "결국 아버지를 닮았군" 하는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어딘가에 그 흔적이 나타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는 청중이 자기를 살필 때 남과 구별되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선언하는 이 '특이한 분리성'을 발견하기를 기원한다.

1. 도덕·기도·출석은 시금석이 아니다
2. "특별한 점이 있는가"가 시금석이다
3.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닮은 데가 있어야 한다
4. 자녀라면 닮음은 불가피하게 드러난다

마태복음 5:47

마지막 질문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의 원천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은 특별해야 합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역설
겉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둘 다 참인 진리. 여기서는 산상설교가 사람을 쓰러뜨리면서 동시에 일으킨다는 뜻이다.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본래 상태의 사람. 매우 도덕적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가 없다.

새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부터 새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뜻이다(고린도후서 5:17).

심령의 가난·애통
자기 안에 내세울 것이 없음을 알고,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 팔복의 첫째와 둘째 복이다.

수동적 저항
폭력이나 싸움을 거부하고 버티는 태도. 로이드 존스는 이것이 적극적 원수 사랑과 다르다고 본다.

중생(거듭남)
성령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다.

시금석

금의 진짜 여부를 가리는 돌.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47절의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원수 사랑 단락과 5:17~48 전체의 열쇠다.
-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사람뿐 아니라 최선의 자연인과도 다른, 본질적으로 특별한 사람이다.
- 그 다름은 죄·이웃·하나님·선행·고난·원수·죽음을 대하는 모든 태도에서 드러난다.
- 특별함의 뿌리는 의지력이 아니라 용서받음, 거듭남,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 성령의 내주에 있다.
- 시금석은 도덕이나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닮은 데가 있는가”이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